

# 『源氏物語』 여성인물 조형과 변모의 의미

-藤壺宮를 중심으로-

朴妍貞\*

## 目次

1. 시작하면서
2. 인물조형의 序 - 발견의 플롯
3. 인물조형의 破 - 관계의 진전
4. 인물조형의 急 - 변모의 의미
5. 마치면서

## 1. 시작하면서

인물조형론이 『源氏物語』 연구의 한 분야로서 자각적, 독립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今井源衛의 「明石上について」<sup>1)</sup>로서 이는 당시 문학연구가 상실한 인간 개체의 생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높이 평가되었다. 이후 인물조형론은 기존의 개성, 개체 회복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작품 세계의 논리에 부수된 방법적 의식 없이 인물 그 자체에 집착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秋山虔, 『源氏物語』의 인물조형론은 어떤 인물의 필연을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구상의 구체적인 진전에 더불어 새로운 국면에 인물조형이 봉사하는 형태로서 이야기 구상에 수반하여 인물에 부착적인 조형이 이루어진다고 한 森一郎의 일련의 연구, 인물조형의 기본적 특성은 각 인물들의 관계에 의한 상대화적 서술이라고 주장한 鈴木日出男를 거치면서 정리되어갔다. 즉 인물조형론이란 각 인물의 생성이 작품 전체의 구조나 주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광의의 의미가 도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인물들의 관계와 구조라는 면에 주목하여 그 시야를 藤壺宮로 좁히고, 중심적인 관계인 光源氏와의 관계 요소를 살펴보면 그녀의 조형요소가 序破急의 형태로 변형되는 리듬감으로 작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한국디지털대학교 실용외국어학과 조교수, 일본고전문

1) 今井源衛, 「明石上について」 『國語と國文學』 1949. 6월호

## 2. 인물조형의 序 - 발견의 플랫폼

작품 『源氏物語』에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 속에서 그 필연성을 납득시키고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도모하는 특징을 가진 유카리<sup>2)</sup> 수법은 일반적으로 혈연의 관계로 나타나 그 신분이나 용모의 유사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伊藤博에 의하면 『源氏物語』 유카리 관련인물 중 桐壺更衣와 藤壺宮만이 유일하게 타인의 관계로서 혈연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sup>3)</sup>고 한다. 이는 결국 두 사람의 연결 고리에 혈연관계를 떠난 용모의 흡사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점을 암시해준다.

先帝の四の宮の、御容貌すぐれたまへる聞こえ高くおはします、母后世になくかしづききこえたまふを、上にさぶらふ典侍は、先帝の御時の人にて、かの宮にも親しう参り馴れたりければ、いはけなくおはしましし時より見たてまつり、今もほの見たてまつりて、「亡せたまひにし御息所の御容貌に似たまへる人を、三代の宮仕に伝はりぬるに、え見立てまつりつけぬを、後の宮の姫君こそ、いとようおほえて生ひ出でさせたまへりけれ。ありがたき御容貌人になん」と奏しけるに、まことにやと御心とまりて、ねむごろに聞えさせたまひけり。4)

桐壺更衣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탄에 잠겨있는 桐壺帝에게 어느 典侍의 주상은 그의 사랑의 대상을 전이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결국 용모의 흡사성은 桐壺更衣를 여전히 그리워하는 桐壺帝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녀의 입궐을 원하게 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닮았다는 이유로 인해 유카리의 구성에 편입되는 藤壺宮의 용모는 작품 속에서 어떤 식으로 기술되어 桐壺更衣와의 친연성을 확보하고 있을까?

桐壺更衣는 “いとにほひやかに、うつくしげなる人”로서 아름다운 용모의 소유자로서 표현되어 있다. 그녀의 짧은 인생만큼이나 작품 내에서의 용모에 대한 기술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2) 인연, 연고라는 의미로서 인물에 있어서는 그 인물과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연고자를 의미하거나 또는 용모가 흡사한 어떤 인연을 갖는 사람을 의미한다. 혈연과 용모의 흡사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역어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그대로 유카리로 표현하기로 한다.

3) 伊藤博, 「藤壺宮中宮」 『源氏物語必携』 學燈社, 1978. 12월호, p.113

4) 先帝의 四宮으로서 용모가 뛰어나시다고 소문이 높으신 분은 모후되시는 분이 둘도 없이 소중히 양육하셨던 분인데, 桐壺帝를 모시는 典侍는 先帝의 치세때 일했던 사람으로서 모후 댁에도 자주 다니는 터라, 그 따님이 어렸을 적부터 다녔기에 정면으로 볼 기회가 있어 「돌아가신 桐壺更衣의 모습과 닮은 분을 三代의 치세에 걸쳐 궁궐에 종사하는 동안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전 황후가 낳으신 따님은 정말 桐壺更衣와 꼭 빼닮은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자태를 지니셨습니다」라며 주상하므로 정말일까라며 桐壺帝는 마음이 끌려 한결같이 입궐을 권유하시는 것이었다.

(日本古典文學全集, 제1권, 「桐壺」, pp.117-118)

텍스트는 阿部秋生 外 校注, 『日本古典文學全集 源氏物語』 小學館 1970-1976이며 인용문은 이에 따른다.

もの思ひ知りたまふは、さま容貌などのめでたかりしこと、心ばせのなだらかにめやすく、憎みがたかりしことなど、今ぞ思し出づる。さまあしき御もてなしゆゑこそ、すげなうそねみたまひしか、人からのあはれに、情ありし御心を、上の女房なども戀ひしのびあへり。5)

이는 그녀의 사후에 이루어진 기술인데, 여기에서 세상의 이치를 아는 식자들은 그녀가 뛰어난 미모를 지녔으며 온화한 인품의 소유자인 점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繪に描ける楊貴妃の容貌は、いみじき繪師といへども、筆限りありければ、いとにほひすくなし。太液の芙蓉、未央の柳も、げに、かよひたりし容貌を、唐めいたるよそひはうるはしうこそありけめ、なつかしうらうたげなりしを思し出づるに、花鳥の色にも音にも、よそふべき方ぞなき。朝夕の言ぐさに、翼をならべ、枝をかさはむと契らせたまひしに、かなはざりける命のほどぞ、盡きせずうらめしき。6)

이는 桐壺帝의 桐壺更衣 회상부분에 楊貴妃의 그림을 빌어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그리워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桐壺更衣는 “なつかしうらうたげなり”로 표현되어 있다 즉 桐壺更衣의 아름다움은 “うつくしげ”로서 작고 아름다워 상대방에게 애정을 느끼게 해주며, “らうたげ”로서 가련하고 아름다운 보호해주고 싶은 느낌이 드는 여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宮もあさましかりしを思し出づるだに、世ととも御もの思ひなるを、さてだにやみなむ、と深く思したるに、いとうくて、いみじき御氣色なるものから、なつかしうらうたげに、さりとしてうちとけず、7)

藤壺宮에 대한 서술은 작품 내에서 극히 제한적이며, 그 인물상 역시 모호한데 위의 인용문은 병이 들어 친정에 퇴출해 있는 藤壺宮를 光源氏가 찾아간 장면이다. 여기에서 光源氏가 藤壺宮를 보며 느끼는 심정 역시 “なつかしうらうたげ”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藤

- 5) 이치를 잘 아는 識者들은 桐壺更衣의 자태나 얼굴이 아름다웠던 점이나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난 데가 없어, 미워하려해도 미워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돌아가신 지금이 되어 비로서 회상한다 보기 괴로운 정도의 천제의 총애 때문에 차가운 태도로 질투했던 것인데, 인품이 뛰어나고 정애가 깊었던 사람일 상급의 궁녀들도 모두 생각해내고 그리워하였다. (텍스트 제1권, 「桐壺」 p.101)
- 6) 그림으로 그려진 楊貴妃의 용모는 뛰어난 畫家라 하더라도 능력에 한계가 있기에 생생한 아름다움이 한층 떨어진다. 太液 연못의 芙蓉 연꽃도 未央 궁전의 버드나무도 흡사 닮은 자태인 것을 당나라 풍의 치장은 단려하기는 하지만 사뭇 更衣의 모습은 친숙하고 가련한 아름다움을 가졌던 것이 생각나시는데, 꽃 색깔, 세소리에도 비견할 도리가 없다. (텍스트 제1권, 「桐壺」 p.111)
- 7) 藤壺宮도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을 떠올리시는 것조차 끊임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기에 굳이 그 일만으로 끝내려고 깊이 결심하셨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사태가 정말 서글프고 참을 수 없는 기색이기에 친숙하고 가련하게 아름답고 그렇다고 해서 기쁨을 허물지도 않으니 (텍스트 제1권, 「若紫」 p.305)

壺宮의 용모는 典侍의 입을 통해 “いとようおぼえて生ひ出でさせたまへりけれ。ありがたき御容貌人になん”라고 표현되는 점이나, 그녀의 입술 이후에 “げに御容貌ありさま、あやしきまでぞおぼえたまへる”라고 평하는 표현, 典侍가 光源氏에게 “いとよう似たまへり”라고 전해 주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닮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桐壺更衣와의 유사성을 자주 드러내며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桐壺帝의 입장에서 桐壺更衣를 생각하는 표현인 “らうたげ”와 光源氏の 입장에서 어머니의 대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藤壺宮를 바라보는 감정이 “らうたげ”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두 사람의 용모가 그녀들을 바라보는 상대방이 갖는 느낌에서도 흡사하다는 점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게 갖는 연애의 감정, 즉 아껴주고 싶은 가련한 여성의 느낌을 부여함으로써, 아버지 桐壺帝의 여자인 藤壺宮를 보는 光源氏の 입장이 이전의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桐壺帝의 시각과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용모의 흡사는 어린 光源氏에게 기억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죽은 모친일지라도, 어렴풋한 사모의 정을 느끼게 했을 것이고 그리움을 자극시켰을 것이다. 자신의 어머니와 닮았다는 말을 듣고 光源氏は “いとあはれ”라고 느낀다. 이 “あはれ”는 눈 앞의 아름다운 사람을 자신의 어머니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에 이 소년의 가슴속에 달리는 정감, 즉 무엇인가 강하게 끌리는 마음이 들어서 소위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인 피의 연결이라고 할 운명적인 연을 느낄 때의 기분의 흔들림<sup>8)</sup>이라고 한다. 결국 두 여인의 닮은 용모로 인해 光源氏は “つねにまいらまほしく、なづきひみたてまつらばや”라는 藤壺宮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품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여인의 흡사한 용모는 光源氏에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남녀간의 애정으로 이행토록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여인의 유카리 구성에서 용모는 이토록 유사성을 가질지라도, 혈연의 관계는 전혀 무관한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藤壺宮를 先帝의 황후대생 황녀라는 최고의 출신으로 만듦으로써 桐壺更衣를 황사시킨 궁정사회의 신분 규정에서 초탈된 존재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更衣에게서 태어난 황자 光源氏에게는 우러러볼 수 없는 높이로 설정함으로써 그 “거리”를 넘어서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려 하는 요청이 상정된 것<sup>9)</sup>이라고 한다. 즉 桐壺帝의 藤壺宮에 대한 총애를 정당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光源氏에게는 넘겨다볼 수 없는 존재로서 상정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견 부친인 桐壺帝의 여자라는 점에서 이미 光源氏와의 거리는 상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 藤壺宮의 지위는 앞으로 光源氏와의 밀회로 인해 태어나게 될 황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미리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유카리의 구성을 취하되 용모에서만 그 유사성을 확보하고, 혈연 관계와는 단절을 시킨 것은 앞으로 物語를 진행시켜나가기 위한 작자의 작위적인 설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8) 阿部秋生, 「藤壺の宮と光源氏」, 『文學』 岩波書店, 1989, 8, p.9

9) 藤岡作太郎, 『國文學全史 平安朝編』 東京開城館, p.113

이다. 즉 유카리의 구성 중 용모의 유사성을 취함으로써 光源氏의 관심을 유도하여, 사모에 이르도록 하고 밀회에 의한 불의의 회임이라는 결과를 낳도록 하는 방향을 취하게 한 것이며, 桐壺更衣의 혈연 관계와는 단절을 함으로써 光源氏에게 영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배태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藤壺宮 발견의 플롯에 작자의 작위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그녀가 등장하는 시기이다. 桐壺更衣가 죽은 것은 光源氏가 3세 때의 일이며, 이후 그의 성장에 대한 기록과 고려 사절단의 예언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후 藤壺宮에 대한 언급이 시작될 때는, 이미 光源氏는 12세로서 성인식 직전에 도달해 있는 나이이다. 藤壺宮의 등장에는 光源氏의 성장과정 9년이라는 공백이 개입해 있는 것이다.

이는 桐壺帝와 光源氏에게 두가지 다른 의미의 결합점으로 실현되고 있다<sup>10)</sup>고 한다. 즉 桐壺帝에게 藤壺宮은 桐壺更衣의 죽음과 무시간적으로 근접한 추모의 이미지인데 반해, 光源氏에게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物語 서술면에 있어서도 桐壺更衣에 대한 애도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불과 서너페이지 이후에 藤壺宮이 등장한다. 읽는 이에게는 이런 인상이 그 직전까지 서술된 桐壺更衣에 대한 애도와 이어져가므로 전혀 어색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이 짧은 분량의 기술 동안 光源氏는 桐壺更衣를 여윌 때 불과 3살의 유아에서 거의 성인식 직전의 나이인 12세가 되는 것이다. 즉 어제처럼 생각되는 시간의 폭은 동시에 光源氏의 성장을 포함한 무거운 실질을 갖춘 세월로서 자리잡아야 하며, 이는 상반된 두가지의 지향을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藤壺宮의 등장을 마련하고 物語 속에 그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桐壺帝의 桐壺更衣에 대한 추모가 필연적이었다. 藤壺宮은 桐壺更衣에 대한 사랑의 대체물로서 유카리의 구성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작자의 의도대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光源氏의 성장은 부득이한 것이다. 따라서 짧은 기술 속에 光源氏는 현저한 성장을 이룬 것이고, 그의 성장 이후에 藤壺宮의 입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작위적인 등장의 구성은 物語의 방향을 결정지워주며, 두 사람의 미래에 위기적인 예감을 불러일으키게 해 준다.

心のうちには、ただ藤壺の御ありさまを、たぐひなしと思ひきこえて、さやうならむ人をこそ見  
め、似る人なくもおはしけるかな、--(中略)-- かかる所に、思ふやうならむ人を据ゑて住まば  
やとのみ、嘆かしう思しわたる。11)

10) 大朝雄二, 「藤壺」 『解釋と鑑賞』 至文堂 1971. 5, pp.30-31

11) 마음 속으로는 다만 藤壺宮의 모습을 세상에 비견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분을 처로 삼고 싶다. 닳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구나 --(중략)-- 이런 곳에 꿈꾸고 있는 사람을 맞이하여 함께 살고 싶다고만 생각하며 한탄한다. (텍스트 제1권, 「桐壺」 pp.125-126)

성인식 이후의 光源氏의 藤壺宮에 대한 아련한 사모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제 성인이 되어 桐壺帝와 같이 藤壺宮의 방에 출입할 수 없게 된 光源氏は 그녀의 아름다움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런 사람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싶다는 남녀간의 애정의 상대로서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예전 桐壺更衣의 친정 집, 즉 외가집인 二條院을 수리하여 그곳에서 기거하게 된 光源氏는 藤壺宮와 함께 살고 싶다는 구체적인 원망을 보이게 되며, 그로 인해 번민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찰해 본 것처럼 藤壺宮는 光源氏의 어머니 桐壺更衣의 유카리로서 등장 하되 용모의 흡사성 만을 취한 구성을 택함으로써 光源氏로 하여금 그녀를 사모하게 되는 절대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며, 또한 그녀의 桐壺更衣와의 혈연관계와 단절된 높은 신분의 상정은 앞으로 전개될 物語의 방향을 미리 전제한 작자의 의도로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또한 그녀의 등장 시기에서도 작자의 작위적인 측면을 엿 볼 수 있었는데, 이는 光源氏의 성장을 기다린 시간의 지연이라는 점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그녀의 발견의 플롯은 이와 같이 앞으로 전개될 光源氏의 운명과 밀착된 것이며, 두 사람의 인연이 작품의 내용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예감을 주는 하나의 전주곡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3. 인물조형의 破 - 관계의 진전

藤壺宮와 光源氏의 관계의 진전을 파악하는 요소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조형요소는 바로 두 사람의 밀회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이 부분은 여러 고주석서를 통해 이전 작품인 『伊勢物語』와의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통설로 받아들여지는 면이 많다. 예전부터 그 친연성이 높은 단으로는 『伊勢物語』의 3·4·5·6·29·65·76단이 거론되어 왔다.

三段 (前略-- 二條の後の、まだ帝にも仕うまつりたまはで、ただ人にておはしましける時のことなり。 12)

이들 일련의 단 중 가장 처음 단인 3단에서부터 그 여주인공격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녀는 바로 二條后이다. 二條后 高子は 藤原長良의 딸이자 清和천황의 女御로서 후에 陽成천황이 될 황태자 貞明친왕을 낳은 인물이다. 바로 위에 제시한 모든 단들은 그녀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모두 밀통으로 일관되어 있으

12) 3단 (전략)-- 二條后가 아직 천제를 모시지 않고 凡人으로 계셨을 때의 일이다.(福井貞助 校注 『伊勢物語』 日本古典文學全集8, 小學館, 1972, p.135)

며, 그 상대역은 “男”, “在原なりける男”로 서술되고 있다.

특히 제65단은 『伊勢物語』 속에서 가장 긴 단으로서 역시 二條后와 그녀를 사랑하는 “在原なりける男”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 그 구성상 여러 단 중에서도 『源氏物語』와의 친연성이 가장 높은 단으로 손꼽힌다.

むかし、おほやけ思してつかうたまふ女の、色ゆるされたるありけり。大御息所とていますがりけるいとこなりけり。殿上にさぶらひける在原なりける男の、まだいと若かりけるを、この女あひしりたりけり。--(中略)-- かかるほどに、帝聞しめしつけて、この男をば流しつかはしてければ、--(中略)-- 水の尾の御時なるべし。13)

이야기는 어느 높은 신분의 여성에게 천제가 마음을 두고 있어 그녀가 궁궐에서 천제를 모시게 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대략의 줄거리<sup>14)</sup>를 살펴 보아도 두 작품에서 지적해볼 수 있는 유사성이 적지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주요 인물인 고귀한 신분의 여성과 그녀와는 현격한 신분의 차이가 나는 남성의 상정으로서 『源氏物語』에서의 藤壺宮과 光源氏の 신분 상정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이다. 더구나 여성은 천제의 여인이라는 점과 남성이 아직 어린 나이여서 시녀들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상정은 거의 편차 없이 부합되고 있다.

源氏の君は、御あたり去りたまはぬを、ましてしげく渡らせたまふ御方は、え恥ぢあへたまはず。15)

藤壺宮 입궐 후의 光源氏の 행적을 기술한 부분인데 그도 역시 아직 성인식을 치루지 않았기에 桐壺帝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따라다녔고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藤壺宮의 거처로

13) 옛날 천제가 마음을 품었기에 입궐한 여성으로서 금지된 색을 입을 수 있는 여성이 있었다. 大御息所이라 불리우던 분의 사촌이었다. 이 여성은 殿上に 종사하던 在原씨로서 아직 무척 어린 남자를 서로 알고 친하게 지냈다. --(중략)-- 그러던 중에 천제가 이를 들으시고 이 남자를 유배보내시기 --(중략)-- 清和天皇의 치세시였을 것이다.(앞의 책, pp.186-189)

14) 궁정에 在原라는 성을 가진 남성이 있었는데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시녀들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기에 서로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고 이를 계기로 그 여성과 서로 친해지게 된다. 이윽고 남자는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하게 되고 여자는 거절하다못해 병에 걸려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이를 더 좋은 기회라 생각한 남자는 그 집에 드나들게까지 된다. 그녀에 대한 사랑에 나날을 괴롭게 보내던 남자는 언젠가 자신은 파멸해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부처나 신에게 그녀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도록 빌어보지만, 사랑은 더욱 더 깊어져갈 뿐이었다. 陰陽師나 무당을 불러 기도를 해봐도 그녀가 더욱 그리워질 뿐이었다. 어느 날 천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염불하는 것을 들은 여인은 宿世로 인해 그 남자의 정에 이끌렸다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데, 이를 듣게된 천제는 남자를 유배보내기에 이른다. 결국 그녀의 사촌인 大御息所도 그녀를 궁중에서 퇴출시킨 후 창고에 가두어 버리니 남자는 밤마다 몰래 찾아와 피리를 불었다.

15) 光源氏は 桐壺帝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하물며 천제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은 더욱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 (텍스트 제1권 「桐壺」 p.119)

드나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추이는 어린 나이의 남성이 신분이 높고 아름답지만, 금기시되고 배일에 쌓여진 여성에 대해 사모의 정을 품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를 유도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유사성은 두 사람의 밀회와 그로 인한 남자에 대한 유배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단락에서는 밀회에 한정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源氏物語』에서 光源氏와 藤壺宮의 밀회에 대한 첫 서술은 「若紫」 권에서 이루어진다.

かかるをりだにと、心もあくがれまどひて、いづくにもいづくにも參うでたまはず、内裏にても里にても、晝はつれつれとながめ暮らして、暮るれば、王命婦を責め歩きたまふ。いかたばかりけむ、いとわりなくて見たてまつるほどさへ、現とはおぼえぬぞわびしきや。宮もあさましかりしを思し出づるだに、世ととの御もの思ひなるを、さてだにやみなむ、と深く思したるに、いとうくて、いみじき御氣色なるものから、なつかしうらうたげに、さりとてうちとけず、16)

이 밀회의 장면은 다기에 걸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왔다. 우선 이 밀회가 처음인지 아니며 이전에도 밀회가 있었는지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통설로는 그 이전에 구체적인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의 대목은 첫 번째 밀회가 아니라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木船重昭에 의해 이것이 첫 번째 밀회<sup>17)</sup>라고 주장된 이래 많은 논란을 불러왔고, 급기야 “輝やく日の宮”권의 결권 인정 여부의 원초적인 문제에게까지 결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는 위 인용문에서의 두 사람의 밀회 장면이 극도로 생략된 필치로 묘사되어 있고, 구체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야기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밀회의 횟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작가로 하여금 기술의 곤란함을 느끼도록 한 근원적인 제약이 무엇인지를 천착해야 함일 것이다.

먼저 두 작품 모두 천제의 여인을 범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모티브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伊勢物語』가 在原業平의 二條后에 대한 연모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거침없는 필치로 그려나가며 和歌를 빌어 심정을 격렬히 토로하는 면면을 보이고 있는 점을 빌어본다면, 천제의 여인을 사랑하는 스토리 구성은 작자의 기술 방식에 큰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밀회가 어떤 점에서 터부시되었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금기시되었다고 여겨지는 결혼형태로는 1) 모자혼 2) 부녀혼 3) 양딸과의 결혼 4) 계

16) 이런 기회에 반드시라며 光源氏は 마음도 들떠서 어디에도 가지않고 궁궐에서도 집에서도 낮에는 웬지 곰곰히 생각에 잠겨 보내고 날이 저물자 王命婦를 추궁하여 앞세워 찾아간다. 그녀가 어떻게 계락을 세웠는지 무리하게 藤壺宮을 만났는데, 이 만남조차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괴롭다 藤壺宮도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을 떠올리시는 것조차 끊임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기에 굳이 그 일만으로 끝내려고 깊이 결심하셨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사태가 정말 서글프고 참을 수 없는 기색이기에, 친숙하고 가련하게 아름답고 그렇다고 해서 기쁨을 허물지도 않으니 (텍스트 제 1면, 「若紫」 p.305)

17) 木船重昭, 「藤壺の宮像修復論」 『平安文學研究』 제43輯

모와의 결혼 5) 같은 어머니를 가진 형제와의 결혼<sup>18)</sup>이 있다고 한다. 光源氏は 아버지 桐壺帝의 처 藤壺宮과 관계를 맺었으므로 이들 중 계모와의 결혼에 해당한다. 법제적으로 보면 이는 律八逆의 하나 중 불효 항목에 “父祖의 첩을 姦한다”는 항목<sup>19)</sup>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상당하는 형량은 “徒 2년반”이다. 두 사람의 밀회가 흔히 금기시하는 결혼의 형태를 취했다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준다.

그렇지만 다기에 걸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일본에는 본래 서모혼에 대한 터부의식이 없었다<sup>20)</sup>고 한다. 율령 이전의 紀에 開化天皇이 부친 孝元天皇의 妃 伊迦賀色許賣命을 범했다는 사실이 거리낌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源氏物語』에 한정해 보더라도 당사자인 두 사람에게 밀회에 대한 죄의식을 “つみ”의 용례를 들어 연구<sup>21)</sup>한 성과를 살펴보면 그들이 스스로의 밀회에 대한 죄의식은 희박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일대일의 남녀관계로서 본다면 이들의 밀회는 정상적이지는 않을지라도 개연성을 가진 구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작가의 묘사 방법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 짐작된다.

결국 밀회의 묘사에 대한 문제는 『伊勢物語』와 『源氏物語』의 큰 차이점인 皇統에 관한 문제에서 그 단서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伊勢物語』는 에피소드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이야기는 시종 두 사람의 사랑이야기로 일관되어 끝맺어지기에 밀회의 문제는 그 과정상 자연히 명백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源氏物語』에서 두 사람의 밀회는 밀회 자체보다는 그 이후 藤壺宮가 光源氏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천제의 자리에 등극하여 光源氏에게 최상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정사의 결과 자체에 주안점이 있는 구상이었기에 밀회 장면의 편입은 필수적이기는 하나, 상세히 기록될 의무는 부여받고 있지 않은 점이다. 즉 필요에 의한 밀회의 기술일 뿐이다.

한편 關根慶子の 용례연구에 의하면 양심적인 면에서 가책을 느낄 때 사용하는 “おそろし” “そらおそろし”는 작품 내에서 밀회와 관련된 인물 중 光源氏 藤壺宮 각각 17회, 栢木와 女三宮 각 8회, 籠月夜 2회로서 光源氏 藤壺宮의 경우가 현저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작자의 이 사건에 대한 엄격한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sup>22)</sup>고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おそろし”로서 표출되는 장면의 의미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内裏へも參らで、二三日籠りおはすれば、また、いかなるにかと、御心動かせたまふべかめるも、恐ろしうのみおぼえたまふ。--(中略)--三月になりたまへば、いとしるきほどにて、人々見たてま

18) 日向一雅, 「光源氏の王權をめぐる」 『日本文學』, 1984. 5월호, p.34-35

19) 「名例律」 八虐의 七 「不孝」 “姦父祖妾” “徒二年半”  
(井上光美 校注, 『日本思想大系 法令』 岩波書店 1977)

20) 藤井貞和, 「タープと結婚」 『源氏物語の始原と現在-定本』 冬樹社 1980

21) 野村精一, 「藤壺の「つみ」について」 『源氏物語の創造』 櫻楓社 1969

22) 關根慶子, 「藤壺物語はいかに扱はれているか」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源氏物語』, 有精堂 1971, p.212

つりとがむるに、あさましき御宿世のほど心うし。--(中略)-- 内裏には御物の怪のまぎれにて、とみに氣色なうおはしましけるやうにぞ奏しけむかし。見る人もさのみ思ひけり。いとどあはれに限りなう思されて、御使などのひまなきもそら恐ろしう、ものを思すこと隙なし。23)

위 장면은 두 사람의 밀회 직후에 이어지는 장면으로서, 작품은 숨가쁘게 藤壺宮의 회임이라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두가지의 사실을 파악해볼 수 있다. 두 사람의 밀회 장면은 앞서도 밝힌 것처럼 횡수의 문제나 서술의 필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거듭된 밀회로서 사랑을 이끌어어나가는 것이 작자의 초점이 아니라 밀회로 인해 생긴 아이에게 시선이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회임을 위한 단 한 번의 밀회만이 최소한의 필연적인 요구로서 서술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밀회의 장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おそろじ”라는 심정어가 밀회 이후 회임을 전후로 반복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이다. 즉 이는 밀회에 대한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품고 있음을 말해준다. 두 사람의 밀회는 결과물을 위한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이며, 문제는 이후의 황통과 관련된다는 점에 있다.

덧붙여 말하면 『源氏物語』는 왕조 현실의 역사와 교차시켜가며 허구의 역사를 구축해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황통이 흐트러질 수 있는 사실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작자의 기술상 얼마나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는가가 그 서술의 필치에서 나타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허구 속에서 光源氏와 藤壺宮의 밀통을 이야기하며 그와 같은 사실이 현실 역사 속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여겨지게 하는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역사 표면에서 나와 있는 황통의 계보도 의심해볼 수 있는 중대한 비밀이며 폭로되서는 안될 사건이다. 그러기에 구체적인 기술을 피해 알기 어렵도록 묘사되는 것은 당연할 일일지 모른다.

이 사건은 앞으로 전개될 物語에서의 光源氏の 영화라는 점과 결부시켜볼 때 거의 결정적인 정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사건에 대한 논의는 다기에 걸치며 수많은 논을 배출해내고 있다. 특히 그 의의에서는 아버지인 천제의 처를 범하고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황권을 비밀스런 아이에 의해 영락한다는 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고대 일반에는 묵인된 서모혼의 습속을 넘어선 극히 반사회적인 것, 반윤리적인 것<sup>24)</sup>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王權論의 입장에서 보면, 光源氏の 왕권이 藤壺宮의 밀회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사실에서 보이듯 비밀상적 반제도적인 왕권으로서 그들의 밀회는 상징론적으로

23) 대궐에도 들어가지 않고, 2, 3일 집에 있었더니, 또 桐壺帝께서는 어찌된 일인가라며 걱정하실 것이기에 두렵다고만 생각한다. --(중략)-- 3월이 되니 藤壺宮 회임의 표시가 확인해지고 사람들이 보고 피이히 여기는 것에도 이 불운한 宿世가 서글프다. --(중략)-- 대궐에는 나쁜 기운에 휘둘러 빨리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추상했던 것 같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桐壺帝는 한층 안타깝고 더할나위 없이 생각하셔서 칙사를 계속 보내시는 것도 웬지 두렵고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텍스트 제1권 「若紫」 pp.306-308)

24) 後藤祥子, 『藤壺の宮の造型』 『源氏物語作中人物論集』 勉誠社, 1993, p.52

새로운 왕의 탄생을 위한 秘儀로서 해석된다. 밀회는 光源氏가 새로운 왕의 자격을 얻기 위한 “성혼”으로서 평가되기도 하며, 이를 통해 光源氏는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서 그의 왕권은 발생론적으로 제도화된 왕권과는 이질적 비일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sup>25)</sup>을 이 사건으로 가늠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藤壺宮과 光源氏의 사건은 분명 그 구성상 『伊勢物語』의 二條后 이야기의 원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파악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논의했듯이 두 이야기의 차이점은 『伊勢物語』가 일상성을 벗어난 일탈된 사랑, 즉 천제의 여인을 지순하게 사랑하는 남자의 연애 이야기에 그 초점이 부여되었다면, 『源氏物語』에서는 이 틀을 빌어 그들의 사랑과 죄를 이미 기반으로 구축시켜놓은 뒤, 그 위에 회임과 그로 인해 오게 될 황자의 탄생, 光源氏의 영화라는 정치적이고도 치밀한 구상으로 그 틀을 훨씬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로써 작품 전체에 앞으로 펼쳐질 국면에 팽팽한 긴장감을 조율해내고 있다.

#### 4. 인물조형의 破 - 변모의 의미

桐壺更衣의 유카리로 등장하여 桐壺帝와 光源氏의 최대의 사랑을 받으며, 직접적인 행동이나 말보다는 어떤 영향력으로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藤壺宮은 초기에는 그 이름다움으로 빛을 발하는 여성으로서 극도로 절제되고 생략된 필치로 묘사되어 있다. 더구나 光源氏의 끝간데 모를 사모로 인해 밀회가 이루어진 뒤로 그녀는 근심에 의해 지배되는 여성의 영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藤壺宮의 모습은 꽤 구체성을 확보하게 되며, 능동적이며 확고한 이미지를 배태하는 양상을 띄게 되는데, 그 시기와 변화에 대한 파악이 藤壺宮 인물 연구에는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다.

藤壺宮가 구체성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賢木」권부터라고 여겨진다.<sup>26)</sup> 그녀는 이 권에서부터 구체적이며 정밀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는 桐壺帝의 퇴위, 봉어에 의해 藤壺宮가 이제 더 이상 황비가 아니기에 그녀에 대한 터부성이 희박해 졌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녀에 대한 정확한 서술은 금기시 되어 오다가 비로서 그 해제를 맞은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묘사에 구체성이 부가된다고 해서 그녀의 변모가 이루어지거나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필치 속의 구체성 확보는 분명 의도가 있었을 것이며 이를 藤壺宮의 변모로의 도입과 아울러 작품의 다른 국면으로의 돌입을 알리는 서곡 정도로 위치로 자리매김하

25) 日向一雅, 「光源氏の王權をめぐる」 『日本文學』, 1984. 5 월호, p.33

26) 伊藤博, 「藤壺中宮」 『源氏物語必携II』 學燈社, p.116

는 것이 좋을 듯하다.

藤壺宮의 변모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단 그 시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라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일반론은 대개 藤壺宮의 출가를 변모의 시점으로 상정하고 있다.

命長くも、と思ほすは心うけれど、弘徽殿などの、うけはしげにのたまふと聞きしを、空しく聞きなしたまはましかば人笑はれにや、と思しつよりてなむ、やうやうすこしづつさはやいたまひける。27)

한편 그녀의 출산 시 弘徽殿女御를 의식하는 모습에서부터 변모의 기점을 찾는 의견도 많다. 이제까지 수동적이며 거의 감정의 기복이 표출되지 않았던 藤壺宮의 이와 같은 심경변화는 흔히 남성에게 사랑받는 여인으로서의 모습에서 어머니로서의 변화라는 일면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회임 뒤의 고뇌와 고독이 단련시킨 결과<sup>28)</sup>라고도 한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弘徽殿女御의 저주를 소문으로 듣고 도리어 건강을 회복해 출산을 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표출되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인식보다는 光源氏와의 밀회로 인한 자신의 죄과가 탄로날까 두려워하는 염려나 근심이 더 강하다. 그녀에겐 아직 어머니로서의 뚜렷한 자각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 부근에서부터 그녀의 변모의 단초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 시점을 변모의 시점으로 삼기에 역부족이라 본다.

한편 大朝雄二는 藤壺宮가 자신의 분신으로서 아들 冷泉帝와 紫上를 지상에 남김으로써 그 역할을 완료<sup>29)</sup>한다고 파악한다. 즉 藤壺宮의 이상성은 冷泉帝와 紫上를 지상화함으로써 확인되는 것인데, 冷泉帝가 동궁이 되고 光源氏が 紫上和 신혼방을 차리는 작품 세계의 독자적인 질서가 형성되는 「賢木」 권의 단계에서는 이미 光源氏에게서 藤壺宮의 의미는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파악으로서, 藤壺宮의 유카리로서 그녀의 대역으로 등장하는 紫上和의 결혼이라는 점과 光源氏의 정처인 葵上가 죽은 후의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며 藤壺宮에게 미친 영향도 과장이 컸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藤壺宮의 변모는 光源氏와의 사랑이라는 점에만 국한시켜 단정짓기에는 그 파급의 효과가 너무 크다. 그녀의 변모를 축으로 『源氏物語』의 작품 구조는 정지적인 색조로 채색되며, 그 핵심에 光源氏를 새겨놓는 구도로 내달아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藤壺宮의 출가라는 형태에 초점이 모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은

27)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藤壺宮에게 피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弘徽殿女御가 저주 하듯이 말씀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만약 자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필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마음을 굳게 먹고 점차 조금씩 회복하게 된 것이다. (텍스트 제1권, 「紅葉賀」 pp.397-398)

28) 齊藤曉子, 「藤壺試論-愛と拒絶の構造」 『源氏物語の研究』 教育出版センター, 1979

29) 大朝雄二, 「藤壺」 『解釋と鑑賞』 至文堂, 1971. 5, p.34

藤壺宮가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院の思しのたまはせしさまのなめならざりしを思し出づるにも、「よろづのこと、ありしにも  
あらず變りゆく世にこそあめれ。戚夫人の見けむ目のやうにはあらずとも、必ず人笑へなる事はあ  
りぬべき身にこそあめれ」など、世のうとましく過ぐしがたう思さるれば、背きなむことを思しとる  
に、春宮見たてまつらで面變りせむことあはれに思さるれば、忍びやかにて參りたまへり。30)

위 대목에서 藤壺宮의 판단은 右大臣 일가의 집권이라는 현재 정국의 형세처럼 잠시의  
여유도 없는 긴장감으로 내몰아진다. 桐壺帝의 의향대로 돌아가지 않는 지금의 형세는 척  
부인을 인용함으로써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부가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한  
방도는 光源氏보다 먼저 출가를 결심하는 것이었다.

이후 藤壺宮의 光源氏에 대한 대처에 변화가 생긴다<sup>31)</sup>고 한다. 이전까지 光源氏의 적  
극적인 구애를 외면하던 그녀가 그의 내방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和歌를 읊거나 桐壺帝  
서거 1주기에 친밀한 기분을 담아 和歌 증답을 하여 연대감을 표시하는 등 어디까지나 출  
가를 결심한 자의 대처 방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藤壺宮의 출가 결심은  
그녀의 행동양식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인데, 아직도 남은 문제는 이 시점에서 그녀의 변  
모는 光源氏 한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물론 그녀의 이러한 심정변화는 그녀가 변  
모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의 하나로서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본격적인 변화, 즉  
작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양상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다. 즉 그녀의 출가 결심은  
光源氏에 대한 그녀의 대처방식의 변화를 초래했을 뿐 작품 전면에 대한 진정한 변모는  
출가를 정점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十二月十餘日ばかり、中宮の御八講なり。いみじう尊し。--(中略)-- 最終の日、わか御こ  
とを結願にて、世を背きたまふよし佛に申させたまふに、みな人々驚きたまひぬ。兵部卿宮、大  
將の御心も動きて、あさましと思す。親王は、なかばのほどに、立ちて入りたまひぬ。心強う思  
し立つさまをのたまひて、果つるほどに、山の座主召して、忌むこと受けたまふべきよしのたまは  
す。御をちの横川の僧都近う參りたまひて、御髪おろしたまふほどに、宮の内ゆすりて、ゆゆしう  
泣きみちたり。32)

30) 돌아가신 桐壺帝가 고민하여 정하신 바가 보통 고심이 아니었음을 회상함에도 「만사는 옛날같지 않은  
시세인 것을, 척부인이 당한 불행정도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일이 일어날 신세  
인 것을」이라며 세상이 힘들어 이대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니, 출가하실 마음을 먹는데, 동궁  
을 뵈지않고 머리를 잘라 모습을 바꾼다면 슬픈 일이므로 몰래 입결하였다. (텍스트 제2권 「賢木」  
p.106)

31)鈴木日出男, 「光源氏の女君たち」 『源氏物語とその影響と資料』 古代文學論叢, pp.120-122

32) 12월 10여일 쯤에 중궁의 법회팔강이 개최되었다. 몹시 장엄하였다. --(중략)-- 마지막날에는 藤壺宮은  
자신의 소망을 결원하여 출가하실 것을 부처님께 청하시니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였다. 兵部卿宮이나

桐壺帝 붕어 1주기를 추도하여 藤壺宮은 법회팔강을 준비한다. 그 장엄하고 잘 갖추어진 의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마지막 팔일째 되는 날 藤壺宮은 출가의 의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표명하고 이를 착수에 옮긴다. 그녀의 이런 주도면밀함과 단호함은 인용문의 행간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녀의 출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桐壺帝의 부재 이후 더 적극적으로 변한 光源氏의 구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이것은 그녀의 극히 개인적인 이유일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한가지는 桐壺帝의 죽음에 의해 좌대신 일파의 정권불안 위기가 닥쳐오는 속에서 자각도 없이 밀회를 엿보는 光源氏에게 동궁 후견인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라는 점이다. 특히 그녀의 출가는 『源氏物語』의 여느 다른 출가와는 상이해서, 女三宮이나 浮舟의 그것이 하나의 해결점으로서 위치되는데 반해 藤壺宮의 출가는 역으로 光源氏와의 밀회의 위험을 제거한 안전지대로서, 즉 동궁의 모친으로서의 입장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sup>33)</sup>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밀회사건의 귀결로서 출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밀회의 결과를 보전하기 위한 출가인 것이다. 이렇듯 현세적이며 保身的인 이유가 있는가 하면, 桐壺帝라는 “사랑의 지주” 상실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회한과 참해” “사랑하는 것의 허용을 기도하는 마음”이 그녀의 출가를 동기화시켰다<sup>34)</sup>는 면에서 그녀의 남모를 속죄와 기도의 기재로서 출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는 그녀의 출가 이후의 변모의 구체상을 살펴보면, 그 가닥을 좀더 잘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大臣聞きたまひて、院より御氣色あらむを、ひき違へ横取りたまはむを、かたじけなき事と思すに、人の御ありさまのいとらうたげに、見放たむはまた口惜しうて、入道の宮にぞ聞こえたまひける。--(中略)-- 「いとよう思し寄りけるを。院にも思さむことは、げにかたじけなう、いとほしかるべけれど、かの御遺言をかこちて知らず顔に參らせたてまつりたまへかし。今はた、さやうの事わざとも思しとどめず、御行ひがちになりたまひて、かう聞こえたまふを、深うしも思し咎めじと思ひたまふる」<sup>35)</sup>

大將의 마음도 동요하여 너무 과하신 일이라 생각한다. 兵部卿宮은 법회 중반에 자리에서 일어나 藤壺宮가 있는 발 안으로 들어가셨다. 강하게 마음먹은 일이라 말씀드리고 법회가 끝날 때 天臺座主가 오셔서 受戒할 것을 말씀하신다. 백부인 横川の 僧都가 입컬하여 머리를 깎으시는데 縁안이 동요하여 불길할 정도로 울음으로 가득찼다. (텍스트 제2권, 「賢木」 pp.121-123)

33) 大朝雄二, 「藤壺」 『解釋と鑑賞』 至文堂, 1971. 5, p.36

34) 池田龜鑑, 「長篇的却説化の諸像とその成立」 『藤壺物語』 『物語文學』 1965

35) 光源氏는 이 사실을 들으시고 朱雀院이 그녀를 소망했는데도 그것을 배반하고 가로채는 것이 황송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齋宮의 됃됨이가 무척 사랑스럽고 이대로 놓쳐버리는 것도 안타까운 마음에 藤壺宮에게 의논하신다. --(중략)-- 「잘 생각하셨습니다. 朱雀院이 소망하신 사실은 그것은 그것대로 무척 황송하며 안 된일이지만, 그 유언을 구실로 삼고 朱雀院에서 원하신다는 사실은 전혀 모

藤壺宮의 출가 이후 右大臣 일파의 압력으로 左大臣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光源氏는 須磨로 자진해서 퇴거하는 등 정세는 완전히 右大臣 일가에게 기울어 있었다. 그러던 중, 朱雀帝의 꿈에 나타난 桐壺帝의 계시로 朱雀帝는 양위하여 冷泉帝, 즉 光源氏와 藤壺宮 사이의 황자가 즉위하게 된다. 이로써 다시 정세는 左大臣으로 그 거점을 옮겨오게 되는데, 위 대목은 光源氏가 六條御息所の 딸로서 그의 양녀가 된 齋宮의 입궐에 관한 문제를 藤壺宮에게 의논하는 대목이다. 齋宮에게는 이미 朱雀院이 청혼을 한 상태라 이를 의논하기 위한 것인데, 이 장면에서 표출되는 藤壺宮의 모습은 결단력있으며 그 언동은 다분히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결국 藤壺宮은 朱雀院의 청을 물리치고 藤壺宮가 요청한 형식으로 齋宮을 冷泉帝의 후궁으로 입궐시키기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단은 이 시대의 정치형태를 고려해볼 때 藤壺宮가 무리수를 두더라도 光源氏의 정치적 기반을 굳혀주기 위한 행위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繪合」 권에 이르러 “前齋宮の御參りのこと中宮の御心に入れてもよほしきこえたまふ”이라고 서술되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 藤壺宮의 의향으로 齋宮의 입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 아는 것처럼 표현된 사실은 그만큼 외부적으로는 그녀의 정치적 입지, 내부적으로는 의지와 결단력이 평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그녀의 모습에는 光源氏의 비밀스러운 사모의 대상이었던 내밀한 인상을 불식시키는 느낌이 든다. 이 변모는 光源氏와 함께 정치의 바깥 무대로 올려진 결과로서 파악할 수도 있고, 아들 冷泉帝를 사이에 두고 손발이 맞는 연대에 두 사람의 사랑의 증거가 담겨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36)</sup> 그들에게는 분명 운명공동체적인 무엇이 존재했다.<sup>37)</sup>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의 변모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는 光源氏의 아버지로서의 자각의 촉구이며, 나아가 그를 영화의 길로 전도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그녀의 변모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 光源氏 영화의 영달이다.

더구나 그녀의 죽음은 光源氏의 영화를 위한 필연적인 도착점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의 작품 속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光源氏의 신분은 藤壺宮가 아무리 지지를 하더라도 신하로서의 신분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그의 신하로서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光源氏는 예언에 부합되는 인물이기 위해서는 신하가 아닌 신분이어야 한다. 아무리 明石上에게서 낳은 딸이 천황비가 되더라도 그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冷泉帝의 친부라는 점이 세상에 폭로 되어도 안된다. 이는 藤壺宮를 궁지에 몰

---

르는 일로 해서 입궐시키도록 하십시오. 朱雀院도 이제는 필시 그런 일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 열심하시니 이렇게 말씀드려도 많이 원망하시지는 않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텍스트 제2권 「添標」 pp.309-310)

36) 伊藤博, 「藤壺中宮」 『源氏物語必携Ⅱ』 學燈社, p.117

37) 두사람이 운명공동체로서 그 비밀스러운 일을 공유하고 서로 그곳에 인생의 정신적 기저를 두고 생애를 걸어온 것으로서, 운명공동체로서의 두사람의 인생사 전개야말로 『源氏物語』의 주제와 구상의 핵심이었다. (森一郎 「藤壺宮の眞像」 『源氏物語作中人物論』 笠間書院, 1979, pp.31-32)

아넣는 것으로 이 物語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한다. 그녀는 오욕에 물들이는 일 없이 소중한 채로 생애를 보내야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sup>38)</sup> 결국 방법은 한가지, 藤壺宮의 사후에 冷泉帝 자신이 은밀히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宮いと苦しうて、はかばかしうものも聞こえさせたまはず。御心の中に思しつづくるに、高き宿世、世の榮えも並ぶ人なく、心の中に飽かず思ふことも人にまさりける身、と思し知る。上の、夢の中にも、かかることの心を知らせたまはぬを、さすがに心苦しう見たてまつりたまひて、これのみぞ、うしろめたくむすぼはれたることに思しおかるべき心地したまひける。--(中略)--  
 これは來し方行く先の大事とはべることを、過ぎおはしましに院後の宮、ただ今世をまつりごちたまふ大臣の御ため、すべてかへりてよからぬことにや漏り出ではべらむ。--(中略)-- わが君孕まれおはしましたりし時より、故宮の深く思し嘆くことありて、御祈禱仕うまつらせたまふゆゑなむはべりし。--(中略)-- よろづの事、親の御世よりはじまるにこそはべるなれ。何の罪とも知らしめさぬが恐ろしきにより、思ひたまへ消ちてし事を、さらに心より出だしはべりぬること」と、泣く泣く聞こゆるほどに明けはてぬればまかでぬ。<sup>39)</sup>

藤壺宮은 3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녀는 죽음에 임박하여 자신의 생은 다른 사람에게 비견할 바없이 영화로왔던만큼 그 괴로움도 그치지 않았음을 술회하며 자신의 생을 정리한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단 한가지 冷泉帝가 자신의 친부가 光源氏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을 괴로워하며,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고 느끼는데 이는 두 사람의 밀회의 결과로 생긴 내밀한 비밀이 밝혀질 시기가 긴박해졌다는 예감을 부여해준다. 이윽고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은 온통 그녀의 덕을 칭송하며 그 죽음을 안타깝게 추모할 뿐이다. 비밀은 알려져야 하지만 그녀는 비밀이 알려지는 오욕의 순간을 맞지 않고 세상을 하직했으니 이제, 冷泉帝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순간만이 남은 것이다.

드디어 冷泉帝는 기도승의 밀주로 인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부친을 신하의 자리에 둔 채 자신이 천제에 등극하여 하늘을 격노하게 했다고 판단, 급기야는 光源氏에게 양위하려

38) 清水好子, 「藤壺の死」, 『講座源氏物語の世界 第四集 有斐閣 1981, pp.175-176

39) 藤壺宮은 너무나 괴로워서 확실하게도 말씀하지 못한다. 마음 속에 계속 생각나는 것은 높은 宿世와 이 세상의 영화를 견줄 사람이 없었지만 마음 속 괴로웠던 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신세였다고 깨닫는 것이었다. 桐壺帝가 꿈 속에서조차 이런 사실(밀통)을 알지못했던 것을 정말 괴롭게 생각하며 이 일만은 현세의 걸림돌이 되어 사후에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셨다. --(중략)-- (승도가 말하길 이는 과거에도 장래에도 大事인데 이미 돌아가신 桐壺帝나 藤壺宮 중궁 그리고 현세의 정무를 맡고 계신 光源氏를 위해 이대로 숨겨두면 모든 분에게 도리어 좋지않은 소문이 날 지 모릅니다. --(중략)-- 천제께서 아직 태내에 계시 적에 돌아가신 藤壺宮께서 깊이 한탄하시는 일이 있어 祈禱를 드린 것은 사정이 있습니다. --(중략)-- 모든 일은 부모 세대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천제께서 어떤 죄도 모르시고 계신 것이 두려운 일이기엔 결코 생각치 말아야 할 일을 굳이 마음 속에서 꺼내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며 거듭 울며 주상하는 동안 날이 밝자 승도는 퇴출하였다. (텍스트 제2권, 「薄雲」 pp.435-442)

고 한다. 그러나 이는 수포로 돌아가고 이윽고 감추어진 아들 冷泉帝의 후원으로 光源氏의 정치적 앞날은 승승가도를 달릴 뿐이었다.

藤壺宮가 죽은 지 8년 후 그는 准太上天皇이라는 유례없는 지위에 오름으로써 자신의 정치 생명의 정점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인 운명은 바로 藤壺宮가 모두 마련해 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의 영화의 역사에는 물론 葵上の 영향도 있다. 그녀는 光源氏의 정치적 파벌을 결정해주는 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도 신하로서의 신분을 바꾸어주지는 못한다. 결국 光源氏의 정치적 운명을 저변에서 좌우하고 이끌어 준 것은 藤壺宮 한 사람으로서 그의 영화와 발전의 원형이요 시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마치면서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인물들의 관계와 구조라는 면에 주목하여 그 시야를 藤壺宮로 좁히고, 중심적인 관계인 光源氏와의 관계 요소를 살펴보면서 그녀의 조형요소가 序破急의 형태로 변형되는 리듬감으로 작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藤壺宮는 光源氏의 어머니 桐壺更衣의 유카리로서 등장하되 용모의 흡사성 만을 취한 구성을 택함으로써 光源氏로 하여금 그녀를 사모하게 되는 절대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며, 또한 그녀의 桐壺更衣와의 혈연관계와 단절된 높은 신분의 상징은 앞으로 전개될 작품의 방향을 미리 전제한 작자의 의도로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그녀의 발견의 플롯은 앞으로 전개될 光源氏의 운명과 밀착된 것으로 시작되나, 그 후 전개되는 일탈된 사랑인 밀회라는 이야기 구조를 통해 회임과 그로 인해 오게 될 황자의 탄생, 光源氏의 영화라는 정치적이고도 치밀한 구상으로 작품 전체에 앞으로 펼쳐질 국면에 팽팽한 긴장감을 조율해내고 있었다.

이후 이루어지는 그녀의 변모는 光源氏를 권력의 핵심으로 이끌어 冷泉帝의 치세를 성대로서 지탱한 내면적 힘으로 작용함으로써, 그에게 정치적 영달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구나 그녀의 죽음은 光源氏의 내부에는 영원의 여성상으로 각인되고, 외부적으로는 그의 신분의 향상을 위한 필연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녀의 작품 속에서의 등장과 퇴장 모두 光源氏의 극한의 사랑과 지위를 위해 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参考文献】

- ・阿部秋生 外 校注, 『日本古典文學全集 源氏物語』 小學館 1970-1976
- ・阿部秋生, 「藤壺の宮と光源氏」『文學』 岩波書店, 1989. 8, p.9
- ・池田龜鑑, 「長篇的却説化の諸像とその成立 27 藤壺物語」『物語文學』 1965
- ・伊藤博, 「藤壺宮中宮」『源氏物語必携』 學燈社, 1978. 12월호, p.113
- ・井上光美 校注, 『日本思想大系 法令』 岩波書店, 1977
- ・今井源衛, 「明石上について」『國語と國文學』 1949. 6월호
- ・大朝雄二, 「藤壺」『解釋と鑑賞』 至文堂, 1971. 5 pp.30-31
- ・木船重昭, 「藤壺の宮像修復論」『平安文學研究』 제43輯
- ・後藤祥子, 「藤壺の宮の造型」『源氏物語作中人物論集』 勉誠社, 1993, p.52
- ・齊藤曉子, 「藤壺試論-愛と拒絶の構造」『源氏物語の研究』 教育出版センター, 1979
- ・清水好子, 「藤壺の死」『講座源氏物語の世界』 第四集, 有斐閣, 1981, pp.175-176
- ・鈴木日出男, 「光源氏の女君たち」『源氏物語とその影響と資料』 古代文學論叢6,
- ・關根慶子, 「藤壺物語はいかに扱はれているか」『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源氏物語3』, 有精堂, 1971, p.212
- ・野村精一, 「藤壺の「つみ」について」『源氏物語の創造』 櫻楓社, 1969
- ・日向一雅, 「光源氏の王權をめぐる」『日本文學』, 1984. 5월호, p.34-35
- ・福井貞助 校注, 『伊勢物語』 日本古典文學全集8, 小學館, 1972, p.135
- ・藤井貞和, 「タープと結婚」『源氏物語の始原と現在-定本』 冬樹社, 1980
- ・藤岡作太郎, 『國文學全史 平安朝編』 東京開城館, p.113

## 要 旨

本論文では、物語を織り成している人物の關係と構造という視点で、その視野を藤壺宮にしぼり、その中心的な關係である光源氏との關係の要素を探ることによって、彼女を造型している要素が序破急の形で變形されているリズム感を維持しながら作品の全体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ことを考察してみた。

藤壺宮は光源氏の母である桐壺更衣のゆかりとして作品の中に現れるが、似ている容貌の面だけを吸収した構成を取ることによって光源氏が彼女を願望するようになる契機を拵えていた。彼女の發見のプロットであるゆかりの造型はこれから展開される光源氏の運命と密着されたのであった。その上、逸脫された戀の密通という構造を通しての懷妊と皇子の誕生、光源氏の榮華という政治的でかつ緻密な構想は作品の全体にこれから廣がる局面に緊張感を加えていた。最後で彼女の出家と死に至る過程の中での変貌は光源氏を權力の核心の位置に導いた内面的な力として作用することによって光源氏の榮華の原型でありながら始原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キーワード：人物造型、藤壺宮、光源氏、ゆかり、変貌、榮華

투 고 : 2005. 11. 30  
1차 심사 : 2005. 12. 10  
2차 심사 : 2005. 12. 31